

SKT, 글로벌 동맹 굳히기... '투게더 AI' 투자로 복미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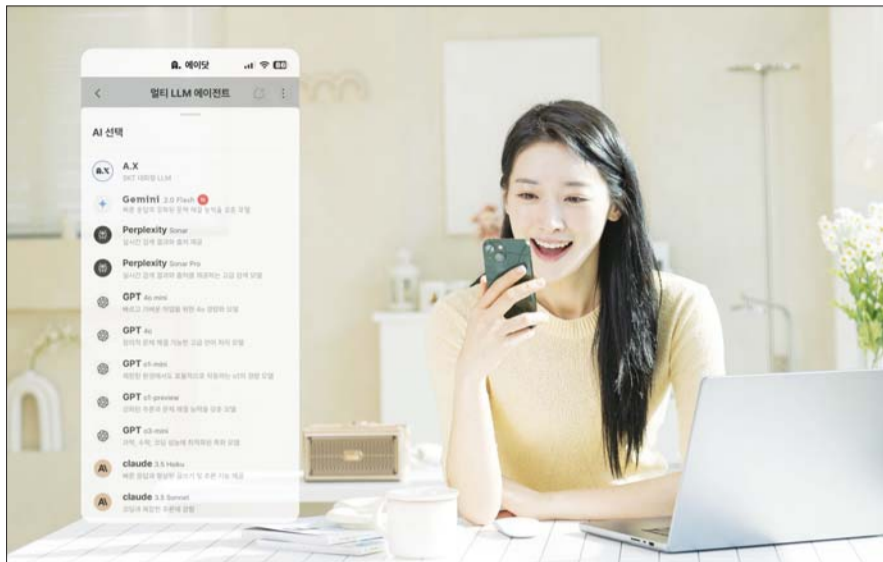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가속화
엔트로픽·퍼플렉시티 등 투자 이어
AI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적 행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전방위 협력하는 것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4일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 '투게더 A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엔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유망 AI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는 쾌거를 맞았다.

투게더 AI는 AI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됐다.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추론과 파인튜닝,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기반한 저비용 GPU 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AI 효율화 분야의 혁신적 알고리즘인 '플래시어텐션' 개발로 유명한 주요 연구진들이 참여해 줌, 워싱턴포스트,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AI 에이전트 'A.'에 구글 자체 LLM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비롯해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 'GPT o3-mini'를 추가하는 등 멀티 LLM 에이전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SKT 모델이 새로 추가된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이용하는 모습. /SK텔레콤

50만 고객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3억500만 달러(447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비폴 베드 프라카시 투게더 AI 공동 창업자 겸 CEO는 "SK텔레콤과의 협업은 투게더 AI에도 중요한 파트너십이며 SK텔레콤의 새로운 개인 AI 에이전

트를 개발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복미 시장 진출을 앞둔 글로벌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 LLM, GPU 효율화와 관련해 투게더 AI와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체 LLM인 '에이닷엑스(A.X)', AI 데이터센터 등 AI 영역 전반에서 추가 사업협력 여

이템 및 시너지 창출 기회를 탐색하면 투자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글로벌 AI 기업과 SK텔레콤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자체 개발 AI 모델 에이닷엑스(A.X)와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등을 포함한 멀티 LLM을 기반으로 통신분야(텔코) LLM을 개발해 다양한 사내 운영 업무 및 비즈니스에 활용 중이다. 고객센터에는 클라우드를 파인 튜닝한 텔코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해 상담원이 고객 상담시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엔트로픽 블로그를 통해 클라우드를 베이스 모델로 파인튜닝된 텔코 LLM의 성과를 알리기도 했다. 고객센터에 텔코 LLM을 적용한 후 고객센터에 적용된 LLM의 저품질 응답 비율이 68% 감소했고, 통화 후처리에서 AI의 응답 품질이 인간 상담원의 약 89% 수준으로 높아졌다.

SK텔레콤은 에이닷에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에이닷에서 에이닷엑스와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Perp

exity) 등 5개 글로벌 대표 AI 서비스의 세부 모델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은 A.X부터 챗GPT까지 글로벌 핵심 AI 모델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속적으로 AI 모델과 다양한 AI 편의 기능을 추가해 고객들의 AI 에이전트 체험 편의를 높이고 사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연이은 합종연횡은 소비자 경험 혁신과 함께 자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전략 투자함으로써 첨단 기술 확보의 길을 열어두고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해 최신 트렌드에 처치지 않겠다는 실속있는 계산이다.

이재신 SK텔레콤 AI성장전략본부장은 "협업을 통해 AI 플랫폼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으로 SK텔레콤의 AI 사용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해진 "방향 바꾸며 과감하게... AI의료 투자에 진심"

(네이버 창업자)

서울대병원 포럼서 첫 공개 행보
의료 특화 LLM 개발 성과 공유
"똑똑한 사람에 투자해야 기회 온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가 첫 공개 행보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해진 GIO는 "네이버는 의료 인공지능(AI) 투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 포럼 2025'에서 특별 강연을 맡았다.

네이버와 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와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네이버 이해진 GIO(앞줄 왼쪽 네 번째),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네이버 최수연 대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디지털·바이오 혁신 포럼 2025'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AI 기반 의료 혁신'을 주제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기반 초고속 정밀 항체 발굴 플랫폼 기술 등을 논의했으며, '혁신기술을 통한 미래 의료의 새 지평'을 주제로 신개념 심장내 무선 송수신 보조기기, AI 통합형 로봇시스템 등 기술 토론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3년간 3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단일 연구 지원금 기부액 중 가장 큰 액수다. 네이버는 '네이버 디지털 바이오 도전적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의학 연구를 지원했다. 이달 기

준 633건의 연구과제 중 44건이 선정됐으며 지원에 힘입어 서울대병원은 최근 국내 병원 최초로 한국형 의료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성공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이해진 GIO는 "AI라는 엄청난 물결에 과감하게 올라타야 한다. 똑똑한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방향과 전략을 바꾸면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특화된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타겟을 좁혀서 만든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D2SF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영역을 확장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위메이드플레이

신임 대표에 이상준 선임



위메이드플레이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위메이드타워에서 진행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에 이상준 대표(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이상준 대표는 2003년 NHN을 시작으로 NHN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NHN블랙픽 대표를 거쳐 2022년부터 메타보라 대표로 재직해 온 게임, IT분야 전문 기업인이다.

회사 측은 플레이링스를 포함해 급변해왔던 IT산업에서 20여년 간 역량을 보인 이상준 대표가 새로운 성장, 변화를 이끌 검증된 책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텐센트, AI '훈위안 T1' 전격 공개

韓 기업, 中 시장 진출 변수에 긴장

T1 모델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R1 모델보다 우수해

중국 기술 대기업 텐센트가 인공지능(AI) 추론 모델 '훈위안 T1'을 출시했다.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게임 및 IT 기업들은 텐센트의 '훈위안 T1'이 현지 진출에 영향을 미칠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텐센트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훈위안 T1 모델을 공개했다.

텐센트에 따르면 훈위안 T1 모델은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 모델보다 더 빠른 응답시간과 확장된

텍스트 문서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콘텐츠 조직을 명확하게 유지하고 텍스트를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각(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텐센트는 AI 분야에서 후발 주자로 알려졌으나 최근 AI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이어왔다.

실제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는 AI 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 클라우드 등 AI 관련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U+, 외국인도 클릭 한 번에 셀프 개통

'알닷' 통해 비대면 5분 개통 지원

LG유플러스가 외국인도 빠르게 알뜰폰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는 '외국인 셀프개통'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셀프개통은 외국인 고객이 상담사와의 통화 없이 요금제 큐레이션을 활용해 손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LG유플러스의 공식 알뜰폰 온라인몰 '알닷(알뜰폰닷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고객이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 알뜰폰 업무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상담사와 통화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해 개통에 불편



LG유플러스가 '외국인 셀프개통' 서비스를 알뜰폰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모델이 '알닷'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을 겪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알닷은 U+알뜰폰 요금제 비교부터 가입,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5분만에 온라인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엔터

'갯블' 스핀오프 출격
신작 웹소설 '더 블랙'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글로벌 액션 IP(지식재산권) '갯 오브 블랙필드'의 세계관을 잇는 스핀오프 웹소설이 베일을 벗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지에 무장작가의 신작 웹소설 '더 블랙'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장작가의 '갯 오브 블랙필드'는 뛰어난 전술로 프랑스 외인부대 전설로 불리던 주인공 '강찬'이 동료의 배신으로 전사한 뒤 동명이인인 19살 고등학생의 몸으로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김현정 기자 hjk1@